

OCI, 2차전지 소재 개발 협력

강원도와 투자협약 체결 ... 나노실리콘 슬러리 기술과 융합

OCI(대표 백우석)가 3월12일 강원도와 2차전지 소재 생산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은 최근 2차전지 생산제품의 기존 핵심물질인 나노실리콘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기술은 협약에 따라 OCI의 나노실리콘 슬러리 특화기술과 융합해 앞으로 2차전지용 소재 생산기술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OCI는 경쟁력 있는 소재의 대량생산을 위해 우선 파일럿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공장을 철원권역에 건설하는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차전지 사업은 차세대 동력사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로 기존의 일회용 일반 건전지와는 달리 재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녹색성장산업이다.

소재생산 개발사업도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글로벌기업들이 앞다투어 관련 R&D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에는 30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신성장동력 산업발전을 본격화하는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R&D 사업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과 같은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 소재 분야에 개발을 확대하고, 개발비용 절감, 조기 신제품 개발 등으로 지역의 전문가들이 적극 동참해 관련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2>